

치 사

제3회 신행수기 공모전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법보신문과 불교방송이 주관하는 신행수기 공모는 기도와 신심을 향한 대원력을 마음의 글로 표현해 함께 공감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힐링의 장’으로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합니다.

‘기도와 신심’으로부터 지극하고도 위없는 대원력이 샘솟고, 그 원력으로 말미암아 가피를 성취하고 보리도를 깨우쳤음은 의심없는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이렇듯 기도와 신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주요한 근간임에도 현대인의 삶에서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신행수기 공모는 그 출발 시점에 제기됐던 걱정의 시선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불자들이 과연 신심과 가피를 글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의 물음표는 ‘불자들의 정성어린 수기가 바다를 이루듯 결집했다’는 자긍심의 느낌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극한 발심과 기도, 그리고 신행과 가피를 진솔하게 들려주시어, 스스로의 감동을 이웃의 희망과 용기로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행수기 공모마당의 주인공이며 삶의 진실한 주인이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행수기를 엮은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와 두 번째를 수기를 엮은 ‘가피’는 이웃 종교인까지도 함께 읽고 공감하고 있으며, 그 속에 담긴 발심과 가피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는 불자들의 커다란 자부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천년의 가피로 인해 천년의 성지로 거듭나는 전국의 기도 도량들과 같이, 신행수기 또한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힐링을 삶의 희망으로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과 공덕으로 여러 이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불안과 고통에 있는 이들을 향해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로서의 본분사에 충실할 것입니다.

많은 신행수기 작품을 세심하게 살펴주신 심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고 감동과 축하를 널리 알리는 일까지 정성을 다해온 법보신문과 불교방송에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신행의 전통이 되어가는 공모전을 통해, 여러분의 공덕과 오늘의 감동이 일상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라며, 모두의 희망과 용기로 향기롭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 6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